



[5년 만에 복미 출장길] JY, 글로벌 광폭행보 신사업 토크 결단 임박 03



Economy

코스피	2999.52 (+30.72)	코스닥	1029.03 (+19.96)
금리 (미국 3년)	1.912 (-0.056)	환율 (원/달러)	1178.40 (-1.20) (15일)

대선 쟁점 ‘부동산’... **李** “국토보유세” vs “종부세 폐지” **尹**



코로나 이후 첫 외국인 관광객들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싱가포르 관광업계 및 미디어 팸투어단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국-싱가포르간 여행안전권역(Vaccinated Travel Lane) 시행에 따라 입국한 관광객들로 코로나19 이후 국내를 찾은 첫 외국인 관광객이다. /뉴시스

이재명 후보 ‘국토보유세’
“투기 차단, 재원 마련 큰 역할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의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국토보유세’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두고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부동산 이슈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어 앞으로 두 후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표심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다. 핵심은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리고,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즉, 토지나 건물을 많이 소지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히서울에서 열린 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후보 ‘종부세 재검토’
종부세 고지 앞두고 표심 잡기
양도세·보유세 인하 등 공약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늘어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 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다르게 적용하는 종부세와는 다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꾸준히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보유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반면,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금폭탄’ 카드를 꺼내 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양도소득세, 보유세 인하를 공약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발언은 오는 22일 올해본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는 것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박경의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중소 대출 늘리는 은행들 한계기업 부실 뇌관 우려

은행, 기업대출 전월비 10조 증가
내년 금융지원 종료 땀 부실 심화



은행들이 올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4곳이 한계기업이라는 것. 특히 이중 절반이상은 중소기업이어서 내년 금리인상과 대출만기·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기업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들의 기업대출 누적액은 1059조 3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0조 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조 2000억원)과 비교해 1조 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은행들은 대기업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누적액은 178조 3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881조원으로

같은기간 8조원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한계기업이라는 것.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 공시기업 2520개 중 한계기업은 1001곳으로 39.7%였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환경규제·요소수 대란... 친환경차 가속화

올 국내 판매 전기차 비율 5.5%
요소수 사태에 판매량 더 늘 듯

국내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모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과 요소수 대란까지 겹치면서 디젤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다양한 친환경차를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친환경차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안정화와 배터리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분기 연간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7만 100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268대보다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우리나라는 7번째로 많은 수치다. 중국이 175만 6319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27만 2554대), 독일(1만 1369대), 영국(13만 1832대), 프랑스(11만 4836대), 노

르웨이(8만 4428대) 등의 순이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율은 5.5%에 달한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 중국(9.4%) 다음으로 높다. 미국(2.3%)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301만 2579대로 처음 연간 300만대 판매량을 돌파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량은 최근 발생한 요소수 사태와 맞물리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반 승용차 뿐 아니라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 분야도 신차 출시에 맞춰 전동화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현대차의 1톤 전기 트럭 ‘포터2 일렉트릭’과 기아의 ‘봉고 EV’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차의 소형 전기 화물차인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 EV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누적 판매대수가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전기화물차는 일반 전기 승용차의 두 배인 국비 지원

금과 영업용 번호판 지원에 힘입어 수요가 대폭 늘었는데, 최근 반도체 품귀 난까지 더해지면서 차를 사려면 평균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포터EV는 총 1만 31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2.4% 늘었다. 같은 기간 기아의 봉고 EV도 8798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월평균 판매량도 포터는 1314대(지난해 753대), 봉고는 880대(지난해 446대)로 둘 다 두 배 가량 늘었다. 특히 전기 트럭을 시범 도입해 운행한 CJ대한통운, 쿠팡 등은 내년부터 대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또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FCE T’를 국내 시장에도 출시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제와 요소수 대란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홍남기, 여당 전국민 지원금 주장에... “재정기준·원칙 최대한 견지” /사진 뉴시스
▲ 통일부, 北 3대 혁명선구자대회 조기 개최에 “체제 결속”

▲ 윤석열 “문 정부 ‘돈뿌리기’ 그만하고 물가대책 주력해야”
▲ 하태경 “윤창호법” 개정 발의...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에 적용”



▲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증인 출석... “몸통 밟힐 것” /사진 뉴시스
▲ 김무성 “이준석·김종인, 본원 리더십 보여 우르스렵다”